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제20호 1998. 12. 24(목)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김종식/편집인:김호연/138-16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8-1번지 한화빌딩 303호/전화:(02)400-2501~2502/FAX:(02)400-2505

회장인사

順天金氏宗報

새 종친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金鍾植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친애하는 종친여러분!
저는 드리고 싶은
단 한마디 그저
"만나고 싶습니다"란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한 핏줄을 확인하는
기쁨과 긍지를 나눕시다.
언제나 찾아주십시오.
따스한 국 한 그릇,
한 잔의 술을 나누며
살아생전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을
그려 남깁시다.

'中央宗親會'란 이름으로 宗事를 시작한지도 어언 10여
성상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이곳 저곳 불비한 시설에 불안정한 마음으로 지
냈던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건데 문득 괴나리봇짐의 초라한
신세였었다는 생각에 이르니 이제 그럴싸한 공간이 마련된
것이 스스로도 무척이나 가슴 뿌듯함을 누를길 없습니다.

지난날 애정을 갖고 찾아주시던 각처의 종친들에게 충분
히 예우해 드리지 못했던 점들이 아쉬움으로 지금
에 남아 한 문중의 족장으로서 송구스러움과 부끄러움을 한
시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宗事에 있어서도 내세울 것이 변변찮아
마음 끓여왔으나 무엇보다 전 종친의 화합과 대동단결이 宗
事의 첫째 과제라는 대명제를 놓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전
종친계·지파가 총망라되는 명실상부한 대동보(大同譜) 발
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번 사무실 마련은
그 의의를 더 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2000년을 우리 문중중흥(門中中興)의 시발점
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앙종친회로서는 막중한 宗事를 진행
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본 여건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더욱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저는 늘 마음에 깊이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을
잘 섬기는 자손은 펄시 그 음덕(蔭德)이 비켜가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조상에 지극한 효도는 하늘도 감복해 살아 땅에 있을 적
엔 장수하고 땅을 상으로 준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
니다. 조상섬김이 사람됨의 첫째요, 효(孝)는 백가지 행실
에 마땅한 근본이라는 진리를...

또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宗事는 효심(孝心)의 현시(顯示)입니다. 효도하자는데 무
슨 이설(異說)이 있겠습니까? 나 아닌 남이 조상섬겨 기쁘
시게 하면 나는 마땅히 면구스러워 함이 먼저여야 할 것입
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켜보아 잘 되기를 바라는 겸허함이
그 둘째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조상섬김에 앞장서야 한다'는 신념하나만
으로 늘 함께 宗事에 임해온 자원 종친과 저는 그 어떤 세상
명에도 댓가 또한 바란 적이 없었다는 마음을 긍지로 여기
며, 아울러 순천김문의 자손임을 자랑으로 알고 宗事를 생
각해 왔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정해주는 그 시간까지의 남은 삶이 오로
지 조상께는 기쁨이 되고 자손에게는 자랑과 덕이 되는 宗
事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늘 기원하
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종친 여러분! 저는 드리고 싶은 단 한마디 그저
"만나고 싶습니다"란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한 핏줄을 확인하는 기쁨과 긍지를 나눕시다. 언
제나 찾아주십시오. 따스한 국 한 그릇·한 잔의 술을 나누
며 살아생전 가장 소중한고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을 그려
남깁시다.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또 다른 한 해의 시작
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우리 뜨겁게 손에 손잡고 살
아 감시다. 어렵디 어려운 세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서로 힘이 되고 위로함이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유종의 미가 되는 가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종친가정에 만복이 깃드시
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선달 하순에

중앙종친회 가락동 한화빌딩에 새 둥지 틀다

중앙종친회는 지난 11월 27일 지난 1년반 동안
있었던 서울 사당동 사무실에서 가락동 한화빌딩
303호로 이전하고 100여명의 넓은 공간에 새 둥
지를 틀었다.

가락동 한화빌딩 새 종친회 사무실은 그동안 김
종식 회장의 간곡한 바램을 종친기업인 한화그룹
이 흔쾌히 수락해 이뤄진 또하나의 괄목할 宗事로
서 3년후로 계획하고 있는 역사적인 종친회관 건
립의 꿈도 구체화 할 수 있게 됐다.

종친사무실은 또 회의실을 겸한 넓은 화장실, 대
동보편찬실, 절재공위상정립위원회 등의 방이 따
로 꾸며져 있고, 宗事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공간과
함께 찾아오는 종친들을 맞을 분위기도 갖췄다.

한편 지난 12월 9일에는 입주식을 겸한 현판식
이 있었다. 이날 입주행사에는 대구에서 영희종친,
광주에서 정일종친 등 지역종친회들과 수도권 일

원에 사는 종친 등 40여명
이 참석했다.

또 참석한 종친들은 화
환과 금일봉으로 입주를
축하했고 전국 각처에서
수십통에 이르는 축하전문
이 답지돼, 행사의 의미를
더해줬다.

종식 회장은 이날 행사
에 이어 참석한 종친들과
저녁식사를 겸한 축하주연을 베풀어 종사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종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훌륭한 문중을 만들기 위
해 더욱 분발하는 전기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다시한번 대동보 편찬과 절재공 위상 정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새 보금
자리를 틀
한화빌딩
과 입주식
광경.▶



사설

말·말·말로 宗事 그르쳐서야...

어느 동양 성현이 말하기를 "성공과 실패는 '시작'이라는 과감한 용기뒤에 오는 것이다"라 했고 '비판과 정죄'는 어느 것도 시작해본 일이 없는 대義를 그르칠뿐인 잡배들의 해방놀음이라고도 했다.

宗事란!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라 조상적부터 인정해온 사실이다. 또 宗事는 작은 일이 아닌 실로 큰 일로서 문중의 運과 향배가 결정되는 일인고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말과 탈' 이전에 '시작'이라는 용기가 있었던 점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작금, 우리 순천김문에 말이 많고 탈 또한 심심찮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

뭔가 분명 시작이 된 것이다. 사상 최초의 범종친(凡宗親) 대동보발간(大同譜發刊)을 놓고 한창 말이 난무하고 탈이 만들어지고 있다.

"참가 않겠다" "협조도 않겠다"는 등의 다분히 저항적이고 협박성에 가까운 말에서부터 "시기상조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시기와 방법론의 주장도 있고 "어느 어느 지파도 동조 않겠다"는 등의 선동적인 말도 있어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가 함께 드높다.

당파(黨派) 싸움질에 멍든 조선조 역사를 벌써 잊었는가. 말의 성찬으로 지고새는 오늘의 국회가 추물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순천김문(順天金門)의 족보편찬은 15년전의 갑자보 출간으로 큰 맥을 잡아 대동보라 했으나, 우리가 다 알거니와 양경공파(襄景公派)의 파보(派譜)에 그친 결과가 되고 말았지 않은가?

갑자보는 특히 충시조로부터 나에 이르는 계대가 모두 생략·무시된채 가문의 역사가 임의로 단절, 짜집기 된 것으로 지적돼 잘못된 역사를 공식화한 크나 큰 오류를 그대로 담고 있어 이의 시정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또 만집적인 지평·전서·절재공파가 빠지고 율

'나'라는 아집과 편견, '나만이'라는 독선의 날은 접어야 한다. 가문의 보전과 전통을 위해 말없이 일하는 자손들을 다시한번 존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핏줄의 뜨거운 마음이 아쉬운 때라 하겠다.

이 뜨거운 마음이 진정 격려와 후원이 될 것이요, 이 진한 마음들이 모여 훌륭한 가문의 유업을 이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남종친인 철원공파까지 누락된 반쪽 족보라는 사실이, 명실상부한 범종친 대동보편찬의 질실함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우리 대다수 자손들은 절재공 김종서 장군을 조상이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종친들은 절재공의 계보는 모른 채 지내온 것도 사실일 것이다.

요즘 KBS TV가 방영하고 있는 '왕과妃'라는 드라마를 보지않은 이가 없고, 특히 '만고의 충신'으로 자리매김된 절재공 김종서 장군의 감격적인 내용을 보지않은 종친 또한 없을 것이다.

계유피화로 멸문의 문턱에서 더러는 숨고 더러는 성씨를 고쳐가며 피해 살아야 했던 고통과 단절의 문중史를 역사는 자랑스럽게 자리매김 해주지 않았는가?

후손인 모두에게 자랑이요, 긍지가 된 조상 절재공!

대다수를 점하는 다른 지파의 종친들은 지파와 계파를 초월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단절과 고통의 역사를 어루만진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동보의 합보편찬을 통해 한 핏줄 한 가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나'라는 아집과 편견, '나만이'라는 독선의 날은 접어야 한다.

가문의 보전과 전통을 위해 말없이 일하는 자손

들을 다시한번 존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핏줄의 뜨거운 마음이 아쉬운 때라 하겠다.

이 뜨거운 마음이 진정 격려와 후원이 될 것이요, 이 진한 마음들이 모여 훌륭한 가문의 유업을 이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宗事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일이 결코 되어서는 아니된다.

독선과 아집이라는 소모적이고 낡은 마음의 틀을 버릴 때 가문을 위한 진정한 宗事가 될 것이다.

종친 일각에서 어느 특정 몇사람이 내어맡는 부정과 편견, 선동의 말이 겹쳐하게 '나'를 버린 진정한 가문을 위한 염려와 사랑의 말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종친회의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충고의 말하기를 기대한다.

순천김가문의 분열과 불화를 위한 편견과 험담이 아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다.

작금 중앙종친회는 그동안 거듭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분만을 앞둔 산고로 여기기에, 멀잖은 중흥의 시대를 위한 과도기를 맞아 살을 찢는 '고통의 강'도 건너야 한다는 산모의 숙명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00년은 분명 전인류의 대망의 세시대이기도 하지만 우리 순천김문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중흥'이라는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야 할 역사의 분기점으로 그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있다.

중앙종친회는 이제 어엿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화빌딩에 둥지를 틀었다. 지겹고 초라하던 피나리못집 신세를 면한 것이다. 오는 2000년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다.

새포대에는 새술을 담아야 하듯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둥지에서 탐스런 알을 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새생명이 태어나기를 기원하며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대동보 발간은 분명 우리 순천김문의 중흥을 위한 새로운 생명력이 될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이 난은 원로종친들의 가르침과 충고의 말씀들을 신기 위해 마련됐다. 재준(載俊)종친이 그 첫번째로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될 소중한 말씀들을 보내왔다. 살아서는 덕(德)을 쌓고, 후세에는 교훈(敎訓)으로 남겨 마땅한 이 말씀들을 종친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게재한다.

生活 信條

1. 大義에 徹하라
2. 童心에 歸하라
3. 清廉潔白하라
4. 心身을 修鍊하라
5. 溫順하고 品行 端正하라
6. 謙遜하고 勤儉節約하라
7. 實力을 培養하라
8. 勤勉 誠實하라
9. 忍耐하라
10. 公明正大하라

順金堂 杏坡 金載俊 지음

재준(載俊)종친은 1932년 평안북도 박천군 가산면 용탄동(구여울마을) 출생으로 15세되던 해인 1947년 가을 부친의 권유로 단신 월남, 6·25동란때는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고, 전역후 특무부대(現기무부대)를 거쳐 5·16이후 중앙정보부(現국가안전기획부)에 들어가 대공(對共)업무에 많은 공을 세워 훈·표창을 받았다.

공직에서 나온 뒤로는 대일(對日) 수출입 및 월남(베트남)사업 등 25년간 사업경영에 몸담아 성공했다.

중앙종친회 부회장이인 재준(載俊)종친은 올해로 10년제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것을 비롯해 로타리클럽, 평북도민회, 평북향우회 회장을 맡는 등 각종 사회

단체를 이끌며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고려대 경영대학원과 서울대 최고경영자대학원을 수료하기까지의 남다른 향학열을 불태워 온 재준(載俊)종친은 특히 앞으로 순금당장학회를 설립해 우수한 종친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순천김문의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도 진행 중에 있다.



載俊

(67歲, 襄景公 承旨公派 24代孫)

10월 상달을 맞아 중앙종친회와 각 지파종친들이 시조·중시조 묘소를 찾아 시향제(時享祭)를 올렸다.

10월(陰)은 시향제참사(時享祭參祀)의 달!

지난 10월 28일 양경공을 모신 月潭祠(문경군 가은면 작천리)에서 추향제(秋享祭)를 올린 것을 비롯해 11월 19일에는 전남 승주군(순천) 시조묘소에서 전국각처에서 250여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시향제(時享祭)를 봉행하였다. 또 11월 21에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양경공(襄景公),

특히 12월 1일에는 종식회장 일행이 처음으로 최대 집성촌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을 찾아 현지 종친들과 상견례하고 예천군 지보면 참의공(參議公), 판사공(判事公), 승평군(昇平君) 묘소에서 조상기리는 자손의 정성을 모아 시향제를 봉행해 다시한번 '충효가문(忠孝家門)'의 전통을 확인했다.

경기도 여주 전서공(典書公), 충남 공주 지평공(持平公), 절제공 묘소에서 각각 시향제(時享祭)를 올렸고,

始祖時享祭 승주군 시조묘소에서 봉행

250여 종친 참여, 범종친 행사로 자리매김 “절제공 위상정립으로 역사속에 빛나는 종문” 다짐

올해 시조시향제(始祖時享祭)가 11월 19일 전남 승주군 주암면 시조묘소에서 전국 각처에서 250여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이날 시향제는 전 종친의 화합과 대동단결을 바라는 종식(鍾植)회장의 간곡한 뜻에 따라 초헌관을 절제공파(節齋公派) 회장인 학원(學元)종친에게 양보해 의의를 더했을뿐 아니라 갑자보 발간때까지만 해도 소원한 관계를 씻지 못했던 지평(持平)·전서(典書)·절제(節齋)·철원(鐵原)공파 종친들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계기를 확인했다. 또 올해 시조시향제는 월남종파인 철원공파 명환 원로 종친도 산신제헌관(山神祭獻官)을 맡아 양경공파 일변도였던 종래 종사와 달리 모든 지파가 공히 참례한 명실상부한 범종친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편 이날 생애 처음으로 가장 큰 제례행사에 초헌관(初獻官)을 맡은 학원(學元)종친은 “몇달전 우리 4형제가 시조묘소에 와 자손임을 고했더니 이런 영광이 왔다”며 감개무량해 했고 “순천김문의 자랑스런 조상인 절제공 위상정립으로 역사속에 거듭 빛나는 종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시향제에는 시조묘소 행사 이래 서울·부산·대구·광주·안성·해남·순천 등 전국각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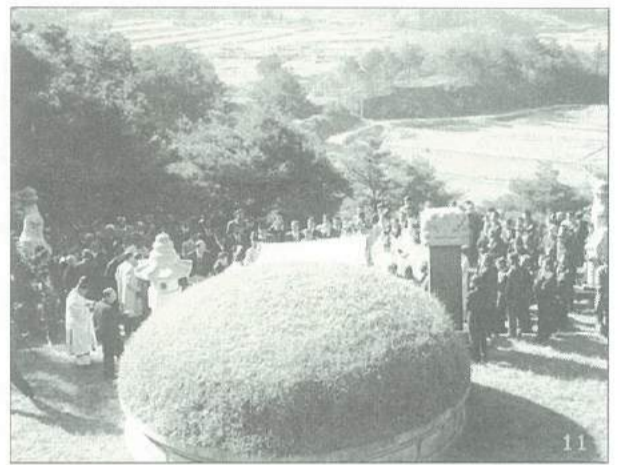
에서 많은 종친이 참석했으며 멀리 일본에 사는 제일동포 호원(虎遠)종친도 화환을 올리며 “난생 처음 참석해보니 정말 조상이 자랑스럽고 가문에 긍지를 느낀다”며 감격해 하면서 종사(宗事)에 기여이 보탬이 되는 자손이 되겠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이어 이날 종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시한번 전 종친의 화합과 대동단결을 호소해 만장한 종친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종친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전 종친이 모두 한마음 한뜻임을 확인했다.

한편 시조 시향제에 이어, 참석한 대연(大淵) 원로 종친(충주거주)과 영남지역 종친회장 응순(應淳)종친과 황성공파 영희(榮熙)종친 등 각 지파 대표들이 대동보발간의 간곡한 뜻을 모아 시조조상께 올리는 '대동보발간고유제(大同譜發刊告由祭)'를 올려 역사상 최초의 명실상부한 '대동보 발간사업' 대장정의 막(幕)을 올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사(宗事)! 시조조상님의 음덕이 오늘에 발현된 일이 아니라 할수 없겠다. 조상의 유업과 덕을 기리고자 하는 자손들의 효성에 하늘의 조상인들 감복(感服) 아니 할수 있을까.

김종식회장은 이날 시향제에서 동원제 도유사로



시조시향제(始祖時享祭), 98. 11. 19. 전남 승주군 주암면 주암리.



동영(東英)종친에 공로패 증정, 98. 11. 19. 순천시조묘소.

불철주야 시조묘역을 돌봐온 동영(전북임실거주)종친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남다른 조상섬기기와 각종 종사에 솔선수범해 온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참의공 시향제(參議公 時享祭)

경북 예천군 지보면 갈천리 묘역에서

참의공시향제(參議公時享祭)가 지난 12월 1일 경북 예천군 지보면 갈천리 묘역에서 종식(鍾植)회장을 비롯한 각처에서 온 종친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렸다.

이날 참의공시향제에서는 종식(鍾植)회장이 초헌관에(初獻官禮)를 올렸고 학원(學元 절제공파)종친이 아헌관(亞獻官)으로 각각 예를 올렸다.

종식(鍾植)회장은 “취임이래 처음으로 최대 집성촌을 찾게돼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참의공 묘역과 구담제실(九潭齋室)을 둘러본 뒤 중앙종친회 차원의 보수·지원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향제에는 경기도 일산지역에 터를 잡은 판사공(判事公)의 막내

아드님인 목사공파(牧使公派) 남녀종친 30여명이 전세버스편으로 조상묘소를 참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상묘소를 난생 처음 찾은 목사공파 종친들은 “평소 한번만이라도 조상묘소를 참배하고 싶던차 이제야 소원을 이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시향제는 참의공(參議公)을 시작으로 판사공(判事公), 자순(自順)조상, 승평군(昇平君) 순으로 올렸고 재실(齋室)에 돌아온 종친들은 음복(飮福)을 나누며 한조상 한핏줄의 뜨거운 정(情)을 확인했다.

한때 150여호나 살던 최대 집성촌 안동시 풍천면 구담(九潭)동은 지금으로부터 500여년전 양경공의 큰아드님인 유



初獻官으로 禮를 올리는 종식 회장.

온(有溫 菊潭公)이 계유피화(癸酉被禍) 이후 벼슬길을 마다한채 한양으로부터 멀리하고 등지를 튼 이래 한때는 150여 호가 넘는 자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100여호 남짓되는 유서깊은 조상의 땅을 자랑스레 지키고 있다. 또 구담(九潭)은 낙동강을 끼고 분지형태를 이룬 땅이 비옥하고 풍광 또한 빼어난 곳으로 경상도 북부지역에서는 규모가 큰 5일장이 서는 곳으로 아직까지도 그 명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가까운 갈밭을 비롯한 대구, 문경 등 경상도지역에 사



參議公 時享祭, 98. 12. 1. 경북 예천 묘역.

는 종친들은 모두 이곳에서 발원된 후손들로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 내내 풀이 지 않고 수백명의 후손들이 물려와 전통적인 양반의 고장임을 실감케 했다.

한편 이날 시향제에는 서울에서 종식(鍾植)회장을 비롯한 학원·호연·세연·수연종친이, 경기도 일산에서는 목사공파종친 30여명이, 그리고 구담(九潭)에서는 종언·동선·종삼·찬연·오연·동걸·봉환종친 등 모두 100여명의 남녀종친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면서 뜻깊은 한때를 보냈다.

월담사 추향제(月潭祠 秋享祭)

열가구도 채 안되는 종친들 월담사 지키며 전통제례 명맥 유지

중앙종친회는 지난 10월28일 세연 총무간사와 수연 목사를 경북 문경군 가은면 작천리로 보내 월담사 추향제에 참가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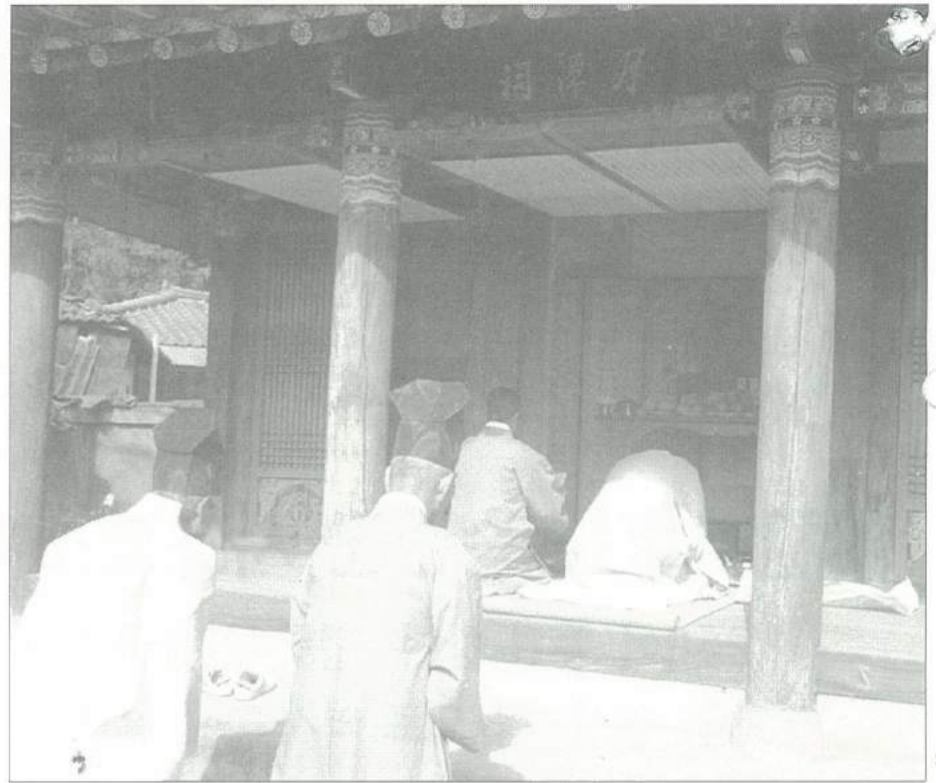
그 옛날 계유참화(癸酉慘禍)를 피해 산자수명한 이곳에 등지를 튼 이래 20여년 전까지만해도 100여호가 넘었던 일가들은 이제 모두 각처로 흩어져 지금은 열가구도 채 안되는 종친들이 월담사(月潭祠)를 지키며 날로 퇴락해져 가고있는 전통제례의 명맥을 이어 가며 살아가고 있다.

이날 추향제는 생전 처음 만난 한핏줄에 대한 각듯한 예우를 차려 세연, 수연 종친에게 헌관(獻官)을 양보하는 조상전래의 미덕(美德)을 되새기게 했

고, 종사를 이끌어가는 중앙종친회에 아낌없는 격려박수를 보내면서 모든 종사에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날 추향제에는 팔순노구에도 아랑곳 않고 참석한 동육·동연종친을 비롯해 칠순의 병균·만희종친 그리고 유사를 맡은 진영종친이 참여했고 음복(飮福)을 통해 조상에 대한 덕담(德談)과 종사에 바라는 노종친들의 충정 어린 충고, 그리고 종사(宗事)에 대한 사심없는 토론을 가졌다.

양경공을 모신 사당 월담사가 있는 이곳 문경군 가은지역은 양경공(襄景公)의 후손으로 명종때인 1550년경에 인백당(忍百堂) 김낙춘(金樂春 1525-



月潭祠 秋享祭, 98. 10. 28. 경북 문경군 가은면 작천리.

1586)이 등지를 튼 곳으로 현재도 후손(인백당파)들이 소양·작천·왕능(文溪)의 문하였던 인백당의 대를 이어 문과(文科)에 출중한 많은 후손들을 배출했다.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퇴계(退

先祖墓所 探訪記

牧使公派宗親會에서는 12月1日(陰10.13) 參議公(有溫) 判事公(元石)의 直系先祖 時享에 參拜하고저 오랜동안의 宿願이었던 所望을 이루고저 뜻깊은 行次를 하였다. 겨울답지 않게 快晴한 따뜻함속에 宗親 30餘名이 탑승한 버스는 하루전 高陽市를 出發하여 順天金門의 求心點인 중앙종친회를 訪問 鍾植會長任을 찾아 뵙고 中央의 會長으로서의 勞苦에 대한 慰勞와 激勵를 드리고 연이어 光州에 모셔져 있는 襄景公墓所를 찾아 參拜하고 이어 忠南公州에 있는 節齋公墓所에 들러 參拜하고 나니 해는 저물기 시작 豫定대로 水安保 溫泉으로 向하였다. 그곳 溫泉裝에서 一泊하고 先祖墓祀 전 목욕재계하고 出發하여 占村驛前에서 聞慶地域宗親會의 前會長任인 東吾宗親을 비롯하여 道淵, 東哲宗親과 合流 九潭으로 向하였다.

宗親會長을 비롯하여 東鮮宗親 等 그곳의 많은 血族들이 따듯이 반겨 주시었다.

이어 參議公과 判事公 墓前에 이르러 비로서 直系子孫으로서의 道理를 다하는 禮를 갖추었으나 이미 오랜동안 찾아뵙지 못한 罪愆함을 禁할 길이 없었다. 이어 高陽에 모셔져 있는 牧使公(粹)의 上代이신 昇平君(若均) 墓所와 牧使公의 親兄任인 縣監公(粹涵)의 墓所를 들러 參拜를 마치고나니 오랫동안 가슴속에 맺혀 있었던 悚懼스러움을 다소나마 덜수 있다는 慰安을 느끼면서 이로써 이번 行事로 生前에 牧使公 後孫으로서의 當然한 道理를 지켰다는 가슴 따뜻한 속에 歸路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러한 行事を 매년 實行하도록 最善의 努力을 하기로 다짐하여 본다.

1998. 12. 2.

牧使公派 宗親會長 浩淵 記



◀昇平君 若均의 묘. 경북 예천군 지보면 갈천리. 98. 12. 1.

玄岩 金鍾喜公 功蹟碑 제막식을 미루면서...

충남 공주 선영에서 告天祭 봉행

중앙종친회는 현암 김중희공 공적비(玄岩 金鍾喜公 功蹟碑) 제막식을 당초 월 30일에서 새해 한식 전후로 미루면서 하늘과 조상에 알리는 告天祭를 충남 공주군 정안면 보물리 선영 공적비 앞에서 김중식 회장을 비롯한 명환·행엽·유환 종친, 호연 간사장, 세연 총무간사, 수연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렸다.

이날 고천제 헌관집례에 앞서 중식 회장은 "제막식을 당초 중앙종친회 차원으로 간략한 행사로 계획했었으나 여러 종친들의 고견을 존중해 행사의 의의를 살려 보다 뜻있게 치루기 위해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玄岩 金鍾喜公은 1922년 9월 24일 충남 천안군 부대리에서 부친 김재민과 모친 오명철 여사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1981년 7월 23일 59세를 일기로 永眠하였다. 玄岩公은 生前 오늘날 한화그룹의 전신인 한국화약주식회사를 창립하고 8·15 해방과 더불어 6·25 동란의 참사가 겹쳐 폐허가 되어버린 조국강토를 복구하는데 헌신했고 감투정신과 근면성실, 합리적인 생활신조로 자랑스러운 삶을 사셨다. 특히 玄岩公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경제계를 이끌며 경제부흥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功勳으로 금탑산업훈장을 비롯, 각종 공로훈장을 받으셨고, 경제교류를 통한 민간의교에도 큰 공적을 남겨 그리스도공화국 최고 훈장인 十字大勳章을 받으시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중식회장은 공적비건립에 공이 많은 유환종친(보령거주)과 정봉모씨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관전한

대동보 발간은 順天金門의 숙원사업



봉 환 양경공 20대손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또한 한세기도 끝자락에 머물러 문화의 세기 희망찬 도약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 順天金門은 始祖 忠 할아버님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절된 역사와 국난, 엄청난 전쟁의 피화로부터 멸문의 고비를 끈질기게 이어나가면서 이제 전국 곳곳에 그 자손들이 곳곳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또한 중앙종친회를 중심으로 지역마다 宗親會를 통한 일문의 결속을 다져가고 있음은 우리들만의 명문가로서 명맥을 이어가는 자부심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동안 종친회 사업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커다란 성과를 있게 하였지만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완전한 합보 대동보 발간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들의 숙원사업이자 어느 부분보다 먼저 이루어야 할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번의 족보발간이 있어 왔으나 그때마다 반쪽에 그쳐 종파간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각에선 반대의 논리를 세우시는 의견도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동단결하여 명실상부한 대동보 발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를 시조로 피를 이은 자손들이 사실 그대로 기록됨은 지극히 타당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자료부족, 상고할 문헌, 파보 등등 어려움 또한 많을 것입니다. 작은 일들은 우리모두 서로 관용으로 배풀어 이해합시다. 이번 대동보 발간을 계기로 더욱 똘똘 뭉쳐 나가시다.

전국에 계신 종친여러분!

이번 대동보 발간에 우리모두 발벗고 동참하십시오. 이번이야 하나되는 족보를 마련합시다. 오는 새해에도 종친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추진하시면서 헌신적으로 임해오신 중앙종친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격려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역사적인 완전한 합보가 될

대동보 발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종친회에는 전국 각처의 종친들로부터 명실상부한 대동보 발간을 환영, 격려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大同譜 발간에 부친다

씨족(氏族)을 형성(形成)하고 있는 문중에서 족보(族譜:大同譜)보다 더 소중한 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인종씨족(人種氏族)들이 살고 있으나 제각각 뿌리를 그리워 하며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일찍이 각씨족별(各氏族別)로 족보간행(族譜刊行)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족보(族譜)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상민(常民) 대우에 벼슬길에도 나가지 못하는 천민(賤民)이 되었던 것입니다.



五淵 양경공 18대손

족보(族譜)는 일반적

사유로 몇 개 파(派)가 누보(漏譜)가 되었으니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합보(合譜)가 되어서 버젓한 대동보(大同譜)로 이룩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갑자보(甲子譜)를 이룩하신 원로(元老)분들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거족대동보(巨族大同譜)가 이루어진다면 조상님들, 후손들에게도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지금의 사회상은 노소(老少)를 막론 도덕률(道德律)이 극도로 메마르고 핵가족(核家族)이 심화되어 부모형제간에 오가는 우애(友愛)와 사랑이 멀어져 가는 것

대동보(大同譜) 편찬으로

문중(門中)의 한(恨) 풀어야...

으로 우리들의 내력(來歷)을 기록해놓은 가첩(家牒) 또는 가승(家乘)이 있었음이 보통입니다. 같은 시조(始祖)의 후손이면 누구나 다 족보에 수록이 되면 자손(子孫)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족보 또는 대동보(大同譜)가 문중(文宗) 때 와서는 성씨(姓氏)와 행렬(行列), 관직(官職) 등을 기록한 책을 관(官)에 비치케 함에 명문거족(名門巨族)들은 앞다투어 수보(修譜)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순천김씨(順天金氏)는 영조40년갑자보(英祖40年甲子譜)가 처음으로 발간되었는데 단종조 절재공(端宗朝 節齋公)이 계유피화(癸酉被禍)를 당하심에 수보(修譜)를 계속 할 수가 없었다.

그후로 1857년 정사보(丁巳譜)가 나오게 되고 다음 정묘보(丁卯譜, 1927년), 정유보(丁酉譜)가 1957년에 1984년 갑자보(甲子譜)가 수보(修譜)되었는데 이런 저런

도 위의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원로(元老) 어른들이 이만 하실 때 다음 세대(世代)가 확실히 인수받아서 손색(損色)없는 대동보(大同譜)를 편찬할 수 있다면 조상님들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확실한 고증(考證)을 바탕으로 합보(合譜)하는 것이 현세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사명(使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서구문명의 영향이 더 심화(深化)되기 전에 대동보(大同譜)를 완수하자는 일념(一念)뿐입니다.

작금년(昨今年) 국가경제나 각가정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이나 종친(宗親)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분발하라는 적기(適期)에 400년 묵은 숙제(宿題)를 풀어 온 문중(門中)의 한(恨)을 풀어서 후손(後孫)들의 빛나는 앞길을 열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돈수백배(頓首百拜) 드립니다.

“망본(忘本)의 한(恨) 이제야 풀게 됐다”

北에 고향을 둔 월남종파인 칠원공파 자손들은 어엿한 順天金 혈통임에도 지금까지 족보에 대신하는 파보 하나로 가문의 명맥을 이어 왔습니다.



형 업 칠원공파 · 단국대교수

생각해 보면 15년전 갑자보 편찬 당시 합보를 염원했던 우리 월남종파의 기대는 혈통의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한 일부종친의 홀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망본(忘本)의 한(恨)만을 더해 왔습니다. 대동보편찬에서 제외돼버린 한 핏줄의 이 같은 처사는 내게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했던 반세기 가까운 타향살이의 설움까지 겹친 감내할 수 없는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아픔은 한 핏줄로부터 받은 '홀대'라는 마음속 깊은 상처가 됐을뿐아니라 자손들에게는 부끄러운 조상의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이번 종친회의 대동보편찬 사업은 이러한 의미에서 나 한 사람뿐 아니라 월남종파인 칠원공파 전체종친의 한(恨)을 푸는 역사적인 일이며, 더욱이 갑자보에 누락됐던 지평, 전서, 절재공파 등 명실상부한 전 종파의 역사를 담게돼 종사(宗事)중의 종사(宗事)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앙종친회 고문으로 종사(宗事)에 참여해 오던바 회장님 이하 임원여러분들의 종사(宗事)에 임하는 그 자원정신을 지켜볼 때 존경해마지 않으며 그 노고와 열정에 감사할 따름으로 종친 모두의 귀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종사(宗事)는 이렇듯 자원적이고 열성적인 종친들이 많을 때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편견이나 아집으로 갈등한다면 결국은 위화감과 분열밖에는 아무것도 남김이 없을 것입니다. 대동보편찬은 우리 당대에는 한을 푸는 것이요, 자손에게는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됨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옵고 대동보 편찬을 통해 이제는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말끔히 해소하고 길이길이 역사에 빛나는 순천김씨문중(順天金氏門中)이 되도록 우리모두 하나가 됩시다.

忠義列傳

> 5 <

<題字=南田元冲植>

崔完秀 作
宋榮邦 畫

節齋金宗瑞

세 중은 김종서만이 이런 민생의 질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예조 판서의 증책을 맡고 있는 그를 삼남순찰사로 파견하여 그 실상을 살펴오게 하였던 것이다.

이때 안평대군은 자신이 십여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고급의 서화(書畵)를 신숙주(申叔舟:1417~75)에게 내보이고 화기(畵記)를 짓게 하니 정통(正統) 을축(乙丑:1445) 초가을에 지었다는 비해당장화기(匪懈堂藏畵記)가 바로 이것이다. 신숙주의 문집인 '보한재집(保閑齋集)' 권14에 실려있다.

한편 세종은 일찍이 집현전 부교리 김예몽(金禮蒙: ?~1469), 저작랑 유성원(柳誠源: ?~1456)등에게 명하여 의서를 모아서 부문별로 나누어 한 책으로 만들고 안평대군 등으로 하여금 이를 감수하게 하여 '의방류취(醫方類聚)'란 책으로 편찬해 내게 하니 총 3백65권이였다.

이 책이 10월 28일 3년만에 완성을 보았다. 김종서가 예조의 장관으로 이 책의 편찬에 음양으로 간여하였을 것은 당연하다.

또 11월 21일에는 춘추관에 보관되어 있던 '태조실록(太祖實錄)' 15권과 '공정왕(恭靖王)실록', 즉 '정종실록' 6권, '태종실록' 36권을 각각 3벌씩 더 베껴내어 본관 실록각(實錄閣)과 충주 전주 성주(星州)의 사고(史庫)에 분장하는 일을 해내는데 이 역시 예조판서인 김종서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다.

세종 28년(1446)은 김종서가 64세, 세종이 50세 되는 해이다. 이해 1월 5일에 김종서와 뜻을 같이 하며 세종을 오래 함께 보필해 왔던 좌의정 신개(申:1374~1446)가 73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하직한다. 이 장례 역시 예조판서 김종서가 주선하여 예장(禮葬)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1월 15일에는 김종서가 세종 26년(1444) 7월 4일 세자에게 소금과 물고기 쇠의 이익이 막대함을 들어 이를 국가에서 관장하여 판매할 것을 건의함으로써 소금의 제조와 전매를 담당할 의염색(義鹽色)이 설치되어 각도에 제염소를 설치하고 시험제조 판매한 결과를 보고받게 되는데 각도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날 김종서는 또 예조의 의견으로 박학평사과(博學宏辭科)와 제과(制科)의 양과로 중시(重試)를 치러 유생들이 등과한 뒤로 공부하지 않는 병폐를 바로잡자고 계청한다.

그런데 1월 21일에는 뜻밖의 일로 김종서가 사헌부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 사도시(司導寺)령(令) 박충지(朴忠至)의 고신(告

身)에 사헌부가 50일동안 서경(署經)하지 않아서 세종이 지평 박자오(朴子晤)를 불러 그 사유를 물으니, 박충지가 세력을 받고 위에 청탁하여 오래 재임해야 하는 구임직(久任職)인 내자시(內資寺) 판관(判官·종5품)에 임명되었으나 조금후에 사도시령으로 옮겨가고 다시 몇 달되지 않아 호조정랑(정랑·정5품)으로 옮겨갔으므로 서경을 하지않았다고 고한다. 그 세력있는 이라는 것은 김종서를 지목한 말이었다. 박충지가 김종서의 인척이 되기 때문이었다.

김종서가 인정에 끌리어 그런 청탁을 들어주었을 지도 모르겠으나 세종은 김종서가 연루된 줄 알자 그랬으면 진작에 서경할 수 없는 사연을 아릴 것이지 어찌서 50일 만기를 채웠느냐고 사헌부 대간들을 꾸짖어 이를 무마해 버린다.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24일에 김종서를 의정부 우찬성(중1품)겸 판예조사(判禮曹事)로 승진 발령한

1월 15일에는 김종서가 세종 26년(1444) 7월 4일 세자에게 소금과 물고기 쇠의 이익이 막대함을 들어 이를 국가에서 관장하여 판매할 것을 건의함으로써 소금의 제조와 전매를 담당할 의염색(義鹽色)이 설치되어 각도에 제염소를 설치하고 시험 제조 판매한 결과를 보고받게 되는데 각도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다. 예조판서 자리를 6년동안 맡겼던 것인데 이제 우찬성으로 승진시키면서도 예조의 일을 계속 관장하도록 판예조사를 겸직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날 예조판서로는 형조판서를 지냈었던 정흠지(鄭欽之:1378~1439)의 장자인 정갑손(鄭甲孫: ?~1451)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정갑손은 불과 3개월 뒤인 4월 25일에 예조판서 자리를 정인지에게 내 놓고 물러난다.

세종은 김종서가 의정부에 들어오자 바로 1월 26일 그만을 불러들여 봉화(烽火)제도라는 것이 사변(事變)에 대응하고자 하여 설치한 것인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 폐지하든지 보완하든지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하겠다며 그 의견을 묻는다. 이에 대해 김종서는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을 개진한다. "지금

봉화간(烽火干:봉화를 맡아 지키는 사람)은 매처 다단 잔망(殘亡)한 1, 2인만 있을 뿐이며, 또 봉화로써 수령들의 공과(功過)를 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쇠퇴해졌습니다. 만약 매처마다 각기 6명으로 정하여 3번 감고(監考)로 택정(擇定)하여 겸하여 수령에게 책임지운다면 거의 될것입니다"

2월 3일에 의염색에서 소금제조 판매법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계청이 있게 되자 2월 8일에 김종서 등은 의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의논하여 아뢴다. "이 앞에서는 의염색에서 파는 소금, 즉 의염(醫鹽) 닷말을 쌀 한말로 기준하여 팔았었는데 지금 싣가는 소금 두말을 쌀 한말로 친다 합니다. 처음에 의염을 군사감(軍資監)에 맡긴 것은 의창(義倉)을 도와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자 해서였습니다. 하물며 염호(鹽戶:소금굽는 백성)가 고생해서 구워냄에서 이기겠습니까. 지나치게 헐값으로 매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매달 싣가에 기준하여 한말씩만 더 주어 팔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세종은 이런 청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그

런데 세종 부부가 3월 9일 수양대군의 저택으로 이어한 다음날인 3월10일에 왕비 청송 심씨가 병이 난다. 친정 어머니와 젊은 두 아드님을 연거푸 잃은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터져나온 병환인 듯 백약이 무효하고 의술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세종은 산천의 신불(神佛)에게 중사(中使)를 보내어 기도하고 죄수들에게 사면령을 내려 음덕을 쌓는 등 신불의 가호에 의지하려 한다.

드디어 14일에는 우의정 하연을 종묘에 보내고 우찬성 김종서를 사직단(社稷壇)에 보내어 기도하게 한다. 그래도 병환의 차도가 없고 점점 위중해지자

15일에는 승려 80여명을 시어소(時御所)인 수양대군저로 불러다가 철야정근을 시키는데 이 자리에서 왕세자를 비롯한 제대군들 및 내시들이 연비(燃臂:말뚝에 불침을 놓는 것)참회로 병고를 대신하려는 의식을 치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효험도 없이 왕비 청송 심씨는 3월 24일에 수양대군의 저에서 52세로 홍서(薨逝)하고 만다. 이에 3월 25일에 국장도감(國葬都監)과 산릉도감(山陵都監)이 설치되어 왕비의 장례를 맡아 치르게 되는데 이때 김종서는 국장도감의 제조(提調)가 되어 실제로 국장 치르는 일을 주도하게 된다.

이때 세종은 인생무상(人生無常)을 더욱 절감하고 불교에 깊이 귀의해가니 우선 대행왕비(大行王妃:시호를 올리기 전에 돌아간 왕비를 일컫는 말)를 위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으로 하여금 금글씨(金字), 은글씨(銀字)로 불경을 베껴 써내는 사경(寫經)불사를 진행케 하는데 이 사경 공덕으로 대행왕비가 왕생극락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불사를 실행하면 필연 대간을 비롯한 유신들의 반대가 성가실 터이라 세종은 우선 승정원에 이 뜻을 전하고 의정부와 의논해서 이를 원만하게 주도해나갈 인물을 천거하라 한다. 의정부에서는 김종서와 같은 믿음직한 신하가 있으니 반드시 잘 처리해낼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다.



내용이 알려지자 예측했던 대로 사헌부 사간원 집현전 성균관에서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중지를 요청하는 상소가 빗발치듯 올라온다. 그러나 세종은 이를 일축하고 사경불사를 계속 강행해 나간다. 김종서를 비롯한 의정부 대신들의 보이지 않는 협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는 소헌왕후 심씨의 상을 삼년상으로 치르기로 하여 이를 제도화 한다. 이 역시 김종서가 영의정 황희와 우의정 하연 등을 설득하여 주청함으로써 관철시킨 일이었다.

세종은 모후인 원경왕후(元敬王后) 여흥(驪興) 민씨(閔氏) 상에 아버지가 있을 때의 모친상은 1년이라는 '주문공(朱文公)가례(家禮)'의 예문에 따라 1년상을 입었었는데 이를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이침에 의례(儀禮)를 상정(詳定)하면서 이를 법제화하려 하니 김종서 등이 다음과 같이 아뢰어 이를 적극 찬동하였던 것이다.

"삼년상은 천하의 통상(通喪)이니 천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습니다. 공자 맹자께서 가르치시어 만세에 법으로 남기셨으므로 어머니를 위해 삼년상을 입는 것은 인정과 예의에 심히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역시 조선왕조 5백년의 통치기 반을 마련한 현군답게 우찬성 김종서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심왕후의 상을 3년상으로 치르도록 3월 26일에 결정한 뒤 밤새 생각해 보고 나서는 아무래도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좇는 것이 주자성리학을 국시로 천명하고 있는 조선의 전례(典禮)에는 더 합당하리라 판단한다. 그래서 3월 27일에 승정원에 전지(傳旨)를 내려 '부친이 살아 있고 모친이 돌아가면 모친을 위해 기년복(期年服:만 1년동안 입는 상복)



시킨다면 때를 놓칠 우려가 있으니 서울의 방패 보충군과 공조(工曹)와 상의원(尙衣院) 장인(匠人), 동강(東江)과 서강(西江) 및 시전(市廛)상인, 각사(各司)의 종, 개성부의 각 방패군, 경기·충청·강원·황해도 선군(船軍), 도첩(度牒)이 없는 승려로 도첩을 받고자 하는 자 등을 징발해 쓸 것을 계청하여 윤희를 얻어낸다.

세종은 평생의 반려로 금실이 좋아 8대군 2공주를

받들어 이와 같이 합리적인 세계를 마련하였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5월 17일에 대행왕비의 산릉(山陵)역사 현장에서 많은 승군들이 돌을 끌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사실이 세종께 알려지자 세종은 크게 노하여 산릉도감 제조(提調)와 낭청(郎廳)들을 모두 잡아들여 문초하려 한다. 국장도감 제조이던 김종서는 산릉의 일이 바쁜데 만약 모두 잡아들이면 일을 못하는 폐단이 생길 터이니 우선 실제 일선에서 일을 지휘하던 영역관(領役官)과 슬령사령(率領使令)을 잡아다가 문초하는 것이 옳다고 아뢰어 일을 무마한다. 그리고 근년에 계속 흉년이 들어 국가 재정이 넉넉지 못

세종은 우리나라에 온 사신들이 음주식욕하며 웃고 떠들고 잔치하고 즐기기를 평소와 다름없이 하던 것을 상기하며 이를 괴이하게 여기고, 부모와 남편의 상을 숨긴 자는 곤장 60대를 치고 귀향 1년에 처한다는 '대명률(大明律)'의 율문이 이런 명나라 사회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져 지나치게 가벼우니 그런 죄는 곤장 1백대에 3천리 밖으로 귀향보내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정부에 하문한다.

을 입는 제도'가 만세의 기준이 되어야 할 듯하니 고례(古禮)에 밝힌 집현전 부교리 하위지(河緯地)에게 옛 제도를 다시 상세히 살펴서 아뢰게 하라고 명령한다.

하위지가 즉각 명령을 받아들여 옛 제도를 낱낱이 살피고 3월 28일에 그 결과를 아뢰니 세종은 영의정 황희, 우의정 하연, 우찬성 김종서 등에게 '부친이 있으면 모친을 위해 기년복을 입는 제도'는 태종이 법으로 정하였으니 자손된 자는 마땅히 받들어 행해야 하고 또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도 이를 주장하였으니 심왕후의 상도 기년상, 즉 1년상으로 치르도록 하라고 말한다.

정자와 주자 같은 대현(大賢)들이 경들보다 어질지 못해서 기년복을 주장했겠느냐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번거롭게 주청하지 말라고 잘라 말한다. 이에 김종서 등은 세자가 졸곡(卒哭)제사(죽은지 석달 뒤의 丁日이나 亥日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를 마친뒤에 상복을 벗고 흰옷으로 1년을 마친 뒤 천담복(淺淡服:얇은 옥색옷)으로써 3년 심상(心喪)을 치르는 절차만은 거처도록 하자고 건의한다. 세종도 이를 옳게 여겨 받아들여 부친 생존시에 당한 모친상의 전례가 이에서 확고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날 김종서는 국장도감(國葬都監) 제조로서 지금이 농사철이라 만약 농민을 산릉역사에 부역

생산하며 온천행 같은 먼 여행길에도 항상 동행하던 왕비 심씨의 상을 당하여 애통이 뼈에 사무치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4월 30일에는 의정부에 글을 내려 백성에게 세금 부과하는 법을 엄정히 세우는 일을 의논해서 아뢰도록 한다.

이에 김종서는 영의정 황희 등과 의논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아뢴다.

"당나라제도를 참고하여 이미 조용조(租庸調)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전분 6등(田分 六等: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으로 분류하여 토지세를 과세하는 것)과 연분 9등(年分 九等의:풍흉의 정도를 9등으로 나누어 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이 제도가 완성되면 토지세인 조(租)법은 바르게 될 것이고, 각 호(戶)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인 공물(貢物)을 나누어 내도록 하는 제도는 지금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의논이 정해진다면 조(調)법이 또한 바르게 될 것이며, 부역(賦役)은 매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백성들에게 부과되 풍년과 흉년에 따라 10일을 보태기도 하고 10일을 빼기도 하는 법이 이미 성립되었으니 용(庸)법이 또한 바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왕조의 과세제도의 기본 골격이 대강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백성의 과세 부담을 가능한한 덜어주려 했던 세종의 거룩한 뜻을 김종서 등이 잘

하니 쓸데없는 관원을 줄이도록 하자고 청하여 허락을 받는데 김종서는 그 자리가 비게 되면 보충하지 않는 온건한 감축 방법을 제시한다.

또 6월 7일에 세종은 명나라의 상례가 허술하여 황제나 황후가 승하하였는데도 우리나라에 온 사신들이 음주식욕하며 웃고 떠들고 잔치하고 즐기기를 평소와 다름없이 하던 것을 상기하며 이를 괴이하게 여기고, 부모와 남편의 상을 숨긴 자는 곤장 60대를 치고 귀향 1년에 처한다는 '대명률(大明律)'의 율문이 이런 명나라 사회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져 지나치게 가벼우니 그런 죄는 곤장 1백대에 3천리 밖으로 귀향보내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정부에 하문한다.

그러자 김종서 등은 '당률(唐律)' 지정조격(至正條格) 등의 법조문을 이끌어 비교하며 그 벌은 너무 과중하니 곤장 1백대에 파직시키고 다시 등용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대답한다. 이 법은 부모가 돌아간 친상(親喪)이나 임금 내외가 돌아간 국상(國喪)에 모두 적용되며 슬퍼하지 않는 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드디어 7월 19일에는 소헌(昭憲)왕후 청송 심씨를 대모산 헌릉 서쪽 영릉(英陵)에 장사지내는 큰일을 치러내게 된다. 김종서는 국장도감 제조로서 5개월 동안 국장치르는 일에 전념하다 이제 겨우 이 일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경향신문

수

1998년
10월 7일
윤력 8월 17일

40판
제16557호

THE KYUNG HYANG SHINMUN 1946년 10월 6일 창간
서울시 중구 정동 22 (우) 100-702 대표전화 (02) 3701-1114 http://www.khan.co.kr

무료도서관 운영 · 벽지 20만권 책기증 독서문화상 국무총리표창 김수연씨



“책을 열어야 미래 열리죠”

『도서관은 입시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독서를 통해 풍부한 간접체험을 해야 할 청소년기에 입시 과목에만 매달려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청소년들에게 도서관 본래의 문화를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제4회 「독서문화상」 수상자중 국무총리상을 받은 「좋은책읽기 가족모임」 대표 김수연(金秀淵·50)씨.

그는 지난 87년 이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70여평 공간에 각종 서적 3만여권을 갖춘 도서관을 열고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책을 대출해주고 있다. 또한 문화혜택이 취약한 농어촌 산간벽지와 섬마을을 대상으로 무료도서관 개설 지원사업을 벌여 지금까지 20여곳에 20만여권을 기증했다. 연변 과학기술대 도서관에 3만여권의 각종 도서를 기증했으며 책을 필요로 하는 해외동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책보내기 운동을 벌여왔다.

그가 책보내기를 펼치는 곳은 책이 없

어 독서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농어촌 지역과 우리나라 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러시아 등 해외교포사회.

『정보화시대가 진전될수록 정보화 혜택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보과잉 현상마저 겪고 있는데 비해 다른 한쪽에선 정보빈곤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우선 「정보의 오지(奧地)」에 있는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책이라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언론인이었던 그는 직장을 그만둔 후 이 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애당초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우선 책 구입비 등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사재를 털었다. 이제 거의 「빈털털이」가 됐다는 그는 「더 많은 이들에게 책을 보내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을때 가장 안타깝다」고 한다.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신앙. 그동안 신학공부에 몰두해 현재 목사로 활동 중이다. (02) 545-3326.

최효찬기자

이런일 저런일

※이 난은 종친들의 회갑, 결혼, 부음 및 기타 특기할 가문의 행사 등을 안내하는 '종친사랑방'으로 꾸며집니다. '이런일, 저런일' 등을 가끔씩 빨리 통보해 주시면 즉시 紙上에 실어 전종친이 두루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친들의 폭넓은 이용을 바랍니다.

회갑 (壽筵)

■경남종친(안산시거주, 가공공파 종친회 감사)이 지난 9월 19일(음 7월 29일) 회갑을 맞아 경기 안산시 새반백화점 5층에서 가족, 친지등이 참석한 가운데 잔치를 베풀었다.

결혼 (成婚)

■행엽종친(철원공파, 단국대학교수, 중앙종친회고문)의 장남 은수군의 결혼식을 지난 9월 26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가졌다.

■성연종친(일산거주, 목사공파)의 장녀 수미양의 결혼식을 지난 10월 24일 일산 하나웨딩홀에서 가졌다.

■상철종친(한화에너지 이사)의 아들 태훈군의 결혼식을 지난 12월 5일 서울 서초동 법원 후생관 예식장에서 가졌다.

■석현종친(가곡공파, 인천거주)의 삼녀 한나양 결혼식을 지난 12월 12일 인천 성산 효도대학원에서 가졌다.

부음 (訃音)

■하중종친(전서공파, 부산거주)의 부인이 지난 9월 27일 별세.

■규석종친(감역공파, 성남거주)의 모친 申連伊(88세)여사가 지난 10월 16일 별세. 경북 문경군 산양면 반곡리 선영에 안장. 가족으로는 규석종친 포함 2남2녀가 있다.

■인후종친(전서영주공파, 인천거주)이 74세를 일기로 지난 11월 2일 여의도 성모병원서 별세. 가족으로는 미망인과 4남1녀가 있다.

추모 (追慕)

■故 김재민(바우로) 30주기 기념미사가 지난 10월 14일 오전 10시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좌성당에서 김근상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됐다. 故 김 바우로는 종식회장의 부친이며 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조부이다.

永登浦漢方病院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指定病院〉

理事長 金 喆 俊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53-1
전화: 678-8225, 0848, 8889



-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부회장
- 持平公派宗會 회장
- 영등포한방병원 이사장
- 법무부갱생보호회 명예회장

※ 위 기사 내용은 수연 종친의 무료도서관 개설 운동과 관련, 경향신문 1998년 10월 7일자에 게재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임.
※ 산간벽지·오지·섬마을을 작은도서관 개설 운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하실 분은 ☎(02)545-3326, 400-250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년회비 수납 현황표

(1998. 9. 21~1998. 12. 20)

고문 부회장	김규남	100,000	이사	김철성	80,000
	김근희	500,000		김유성	100,000
	김재준	500,000		김중길	100,000
	김학원	500,000		김계재	100,000
	김영희	100,000		김동욱	50,000
	김철희	500,000		김상응	100,000
	김문재	500,000		김명환	100,000
	김동원	200,000		김용운	100,000
	김정수	200,000		김병희	30,000
	김도연(현)	200,000		김안천	50,000
운영위원	김동철	200,000	대의원	김규성	20,000
	김형주	200,000		김우복	50,000
	김종은	50,000		김구연	50,000
	김도연(현)	200,000		김상근	50,000
	김동주	100,000		김서연	50,000
	김한수	100,000		김상의	50,000
	김병달	100,000		김완선	50,000
	김상만	100,000		김인웅	50,000
	김상은	30,000		김한수	40,000
	김병기	100,000		김석남	50,000
이사	김동원	30,000	김동춘	30,000	
	김낙정	20,000	김동원	30,000	

◆ 임원 년회비 수납 안내 ◆

중앙종친회는 임원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년회비와 세대당 년회비, 그리고 篤志宗親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每期마다 거르지 않고 정성껏 납부하신 회원님과 篤志宗親의 찬조금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기(98. 4. 1~99. 3. 31)에 납부하셔야 할 임원 년회비는 제9기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비 납부액 □

회장	년	200만원 이상
부회장	년	50만원 이상
운영위원	년	20만원 이상
고문·명예회장	년	10만원 이상
감사·간사·이사	년	10만원
대의원	년	5만원
세대당년회비	년	2만원

□ 온라인 구좌 □

○ 농협	069-02-01-212885
○ 한일은행	146-003175-02-501
○ 우체국	012351-0134884
○ 지로번호	7637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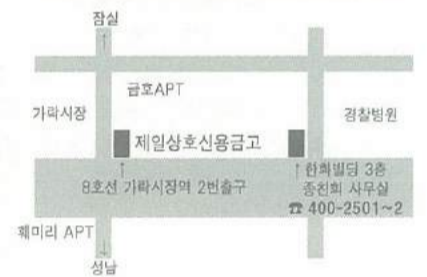
※위의 온라인구좌 또는 지로로 납부하신후 그 내용을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幹事長>

☐ 原稿 寄稿 要望 ☐

順天金氏宗報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宗親 여러분께 바랍니다.

1. 祖上님에 대한 行績과 思想 및 考證資料에 관한 건
 2. 各宗派 및 宗會의 現況 및 活動現況
 3. 宗員의 教養을 위한 內容
 4. 모든 宗員의 專門分野別 參考할만한 글
 5. 孝行, 善行 등 우리 문중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6. 그밖의 詩·隨筆·紀行文
- 위와 같은 내용의 原稿를 보내주시면 宗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종친회 사무실 안내



경덕재묘사 향료 내역

(1998. 11. 21)

중앙종친회	100,000
종목회	100,000
충북종친회	30,000
안양종친회	100,000
김춘희	30,000
김철희	200,000
김재준	100,000
김행업	100,000
김희연	30,000
김동규	20,000
김동철	10,000
김기환	10,000
김철환	10,000
김한수	50,000
김병기	10,000
김삼근	150,000
김흥태	
김동건	30,000
김동주	
김효남	30,000
김동일	30,000
김태희	30,000
총계	1,140,000원

中央宗親會 事務室移轉 入住 贊助內譯

98. 12. 9 중앙종친회 새사무실 이전 현판식에 많은 종친님들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민	500,000	동신	50,000	보연	난화분 1점
행업	200,000	완선	30,000	철준	"
유성	50,000	병운	30,000	형민	"
정일	100,000	오연	20,000	광재	"
상철	100,000	영희	20,000	정태	"
문재	100,000	영배	10,000	철희	"
삼근	100,000	부원	괘종시계(대형)1점	일육회	"
광희	50,000	한철	그림액자 1점		
명환	50,000	상권	난화분 1점		

※축전:길홍, 대연, 보연, 봉민, 창원

세대당 년회비 수납 종친명단

(1998. 9. 21~1998. 12. 20)

김천환	김원주	김영희	김동호	김철의
김영석	김창재	김인성	김보연	김동운
김맹희	김병곤	김동희	김상억	김광연
김성환	김창주	김동수	김형관	
김홍배	김동환	김봉래	김근중	
김상용	김규식	김학이	김중근	
김상장	김종열	김동영	김순희	

찬조금내역

김상용	100,000
김광재	100,000
김수정	30,000
김홍연	50,000
김영희	30,000
김재준	1,000,000
김동수	1,000,000
김동호	1,000,000
김상용	300,000
(광고비)	
김정일	100,000
김부원	300,000
김명재	100,000
김필수	50,000
김정수	30,000
김춘희	50,000
김동건	300,000
김철준	300,000
한화	4,000,000
(광고비)	
호원	1점
(시조시향근조)	
합계	

清溪電業株式會社

전기공사 · 소방설비공사 · 수배전반 · 건설제작
(동자부승인 제1종전기공사업 193호)

대표이사 金文載



■ 중앙종친회 부회장
■ 典書公派 寧州公 19대 손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11-7(청계빌딩)
본사전화: 265-6558, 275-0732~3
공장전화: 877-6227
자택전화: 877-6244

烏嶺産業株式會社

사장 金喆熙



■ 중앙종친회 부회장
■ 襄景公派 忍百堂公 14대 손
■ 서울종친회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56-8
전화: (02)572-5059, 573-5968
자택: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77-803
전화: (02)543-5439

(株)東南特殊運輸

(株)東南商運

대표이사 金東洙



■ 중앙종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監察公 17대 손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44번지
사무실: (0661)755-0124~5
FAX: (0661)755-0188 자택: (0661)52-8441
호출: 012-610-8913 휴대폰: 011-622-3125
(특수화공약품운송전문) (16K 18K 20K 28K)

법무사 金東吾



■ 중앙종친회 부회장
■ 襄景公派 判事公 17대 손

사무실: 문경시 점촌동 244-8
전화: 사무실 (0581)555-4887~8, 2740
자택 (0581)555-4031

내외합동법률사무소

중앙종친회 법률고문 변호사 金亨民



■ 중앙종친회 운영위원
■ 節齋公 18대손

사무실: 서초구 서초동 1689-5
빌딩 4층
전화: (02)3477-0654~6
FAX: (02)3477-0609

한서화물자동차(株)

호남정기화물
한서택배제주특송

회장 金相容



■ 중앙종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南隴公 16대 손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397-13
전화: (0652)211-1271~13
(02)209-6114 (02)571-55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6
한국화물트럭터미널 내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

대성상사

(427호)

사장 金深淵



■ 중앙종친회 운영위원
■ 節齋公 18대손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7
직장: (02)744-4890, 766-3648
자택: (02)766-5233

대문목재(株)

미술품 · 합판 · 건축재 · 가구재

대표이사 金都淵



■ 중앙종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南隴公 16대 손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78
전화: (032)577-7733, 578-7878, 573-1877
FAX: (032)579-1870

고려상건 고려컨설팅

대표 金政壹



광주시 서구 화정동 928-2
금호타운 105-601
전화: (02)514-3285
(062)373-7166~7

- 중앙중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御史公 18대 손

金料元神經外科醫院

원장 의학박사 金料元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01
전화: (062)228-2471
자택: (062)2223-7200

- 중앙중친회 부회장
- 襄景公派 進士公 15대 손
- 광주광역시 의사회 명예회장
- 광주진남 불교신도회장
- 광주박물관회 회장

신정수영장(완벽한 수질관리, 최고의 강사진)
신정헬스(고객의 체력관리와 몸매관리)
신정사우나(황토사우나, 황토방, 야간 가동)

사장 金活龍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223-3
전화: (052)261-3800
(신정수영장)

- 중앙중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承地公 18대 손

<전문공사업>

合同技工社

대표 金東胡



사무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05-6
전화: (02)409-7723
FAX: (02)409-7726

- 중앙중친회 이사
- 襄景公派 翁谷公 13대 손

세무사 金沅杰



사무실: 안동시 운풍동 116-29
전화: 사무실 (0571)54-1773
자택 (0571)55-4197

- 중앙중친회 부회장
- 襄景公派 判事公 18대 손
- 영남중친회 이사
- 博約會 안동지회장

광일공업(주)

대표 김광재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34-3
전화: (0331)34-3171~2
FAX: (331)35-4518

- 중앙중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參判公 14대 손

金大永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316
전화: 사무실 (0581)71-5588
자택 (0581)71-5500

- 중앙중친회 부회장
- 襄景公派 翊贊公 16대 손
- 문경중친회 회장

(주)근하공영 (주)흥인운수

대표 김삼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07-121
전화: (02)972-2331

- 중앙중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橫城公 15대 손

한화종합화학

700년 세월을 이겨온
팔만대장경의 비결, 참숯!

참숯 부착
천연항도, 천연나무심 부착

참숯이란? 참나무로 만든 참숯은 해로운 세균과 냄새를 흡착하는 미세한 탄소 구멍이 아주 많아 습기조절, 냄새제거등의 정화기능이 우수하며, 나무가 토양에서 빨아올린 천연 미네랄이 풍부해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등 생명활동에 유리한 성분들을 발산합니다.

※ 한화 나무나라 참숯은 한반도 백두대간인 강원도 태백, 영월, 정선의 30년생 참나무를 재래식 탄요법으로 만든 참숯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한화 나무나라 참숯 탄생!

대한민국 주부님들! 참숯 건강바닥재로 신바람나게 사세요.

고려인들의 호국염원을 700여년간 간직해온 팔만대장경! 비결은 바로 우리 선조들의 참숯을 활용한 지혜 덕분입니다. 옛부터 선조들은 왕실 무덤에 습기조절 작용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숯을 묻었으며, 집을 지을 때 집터에 수맥이 지나갈 경우 습도조절을 위해 숯을 황토와 섞어 지반을 다지는 공사를 했는데, 해인사 팔만대장경, 석굴암, 다보탑, 금산사 등의 지반에 다량의 숯이 묻혀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화 나무나라 참숯 특징



냄새제거

악취를 흡수하여 없애줍니다



음이온 발생

생체에너지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원적외선 방사

인체활동을 도와줍니다



특수 코팅

청소가 더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국내최초 참숯 건강바닥재



본사 : (02)729-1452, 1462 http://hcc.hanwha.co.kr